

# 정유산업의 좌표와 진로

## 한동안

전세계를 들끓게 하던 걸프전

쟁이 끝났다. 전쟁이란 것이 본래 보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게임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지만, 특히 지난해 8월 2일 이라크가 기습적으로 시작한 이번 전쟁은 비록 그 내용면에서 美國의 일방적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수행된 것이었지만 우리를 흥분시키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하였다.

걸프전쟁이 비록 지구의 반대쪽에서 일어난 먼 나라의 전쟁이었지만 세계적으로 石油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석유의 70~80%를 의존하는 中東지역이 主戰場이었다는 현실이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끌게 한 원인이었던 것 같다.

지난 73년의 1차 석유파동, '79년의 2차 석



南 命 福  
(油公 업무부장)

유위기가 모두 中東지역의 전쟁 또는 혁명등의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던 사실을 감안하고 그 당시 우리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우려와 관심은 당연하다. 더구나, 금번 전쟁이 中東지역에서 산유량이 1~4위에 속하는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등이 직접 전쟁 당사국 또는 주변 관련국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쟁이 6개월동안 지속되었으나 우리가 우려했던 석유수급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유가격이 10월에 최고 배럴당 35달러수준까지 치솟아 전쟁전보다 배나 올랐지만 곧 안정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석유수급위기나 가격파동이 일어났더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이번 中東 걸프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귀중한 경험은 세계적인 석유수급상 공급불안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번의 걸프전쟁이 발발했는데도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공급부족이나 가격파동이 없었던 것은 미국의 전쟁개입으로 전쟁이 단기에 끝난다는 확신과 전후에 복구 비용 소요로 인하여 석유공급이 충분하리라는 분명한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진로를 이번 전쟁과 굳이 연계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차제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장래의 전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첫째로,** 앞으로 석유의 장기안정확보를 위해서는 原油導入先의 다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석유의 공급불안은 항상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급원을 분산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전체의 석유비축을 늘려야 하겠다. 정부가 석유비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서구선진국들이 대부분 90일 이상의 비축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이웃 日本의 경우 140일 정도의 비축물량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약 40일분의 비축물량을 갖고 있는 우리의 경우 비상시에 충분한 대처가 어려우리라는 생각이다.

**셋째로,** 한정된 원유공급선의 다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상의 원유를 도입해서 쓸 수 있는 2차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重質油 분해시설이나 탈황시설 등 원유의 質이나 성상을 바꿀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이 有事時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원유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남의 손에 들어있는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 확보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보다 여러가지 방면에서 앞서 간다고 할 수 있는 日本도 벌써 60년대초에 해외유전개발에 발벗고 나서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이즈음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규제일변도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초 油公 蔚山공장이 정상가동한 이래 1970년 말까지 정유사는 5개로 늘어났고 규모면에서도 엄청나게 커졌다. 또한, 국내 他産業은 대부분 유치 단계를 거쳐 성숙단계에 이르러 정부의 육성 및 규제에서 벗어났는데 유독 정유산업 만큼은 아직까지 가격에서 이윤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정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유사의 독과점체제하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